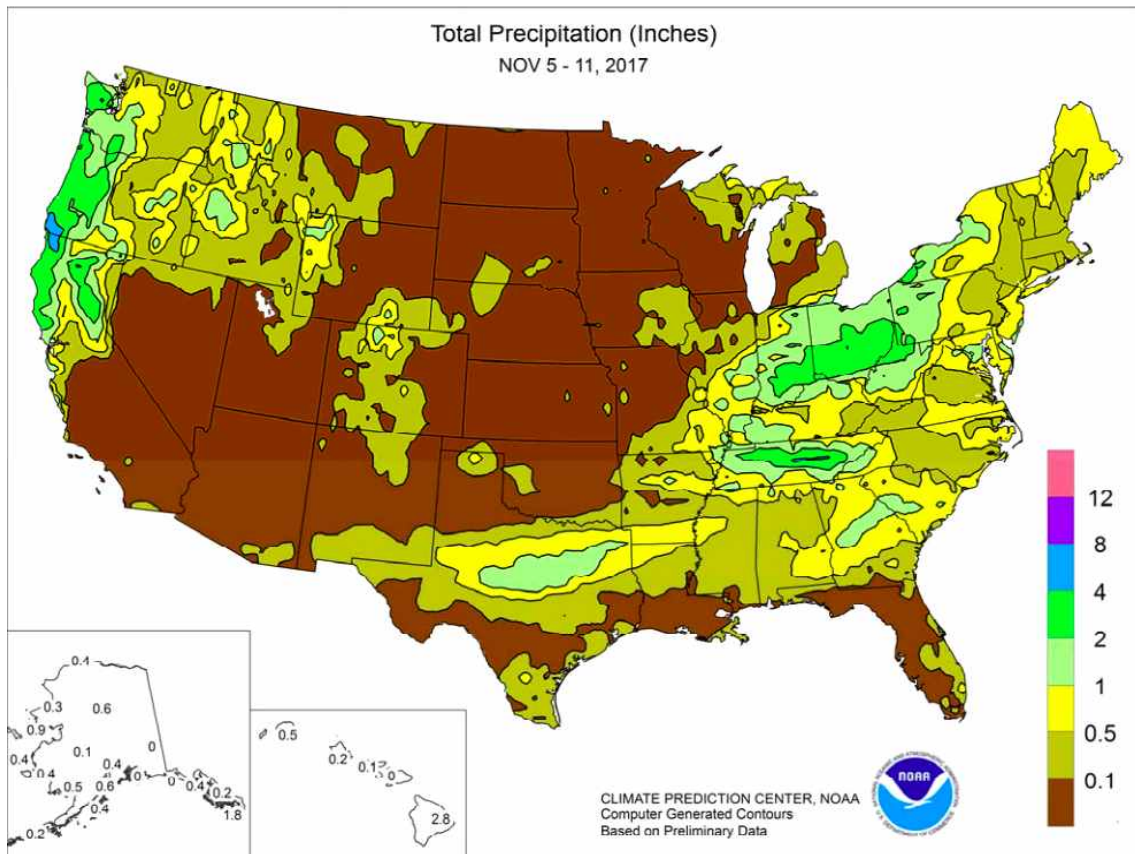


11월 1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46)

□ 미국 기후 현황(11/05~11/11)

중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날이 이어졌다. 중서부의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렸고, 남부와 동부 일대에서도 비가 내렸으며, 걸프만 주변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였다. 오대호에서부터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눈이 조금 내렸다. 남서부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였고, 북서부에서는 비가 내렸다. 로키산맥 북부 지역을 포함한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렸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는 비가 내렸다. 몬태나에서부터 Superio 호수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20°F 정도 낮았고, 그 밖의 북서부 및 북부 지역에서도 평년에 비해 서늘한 기온을 보였다. 몬태나와 오대호 일부 주변 지역에서는 일찍 찾아온 추위로 밤 동안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반면, 아리조나와 뉴 멕시코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5°F 이상 높은 날씨를 보였다. 텍사스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11월 5일 낮 최고기온이 90°F까지 올랐고, 텍사스 남부에서는 11월 7일에 낮 최고기온이 90°F를 넘는 더운 날씨를 보였다.



□ 농업 현황 요약(11/06~11/12)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캘리포니아 북부와 테네시, 오레곤 남서부 등에서는 3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몬테나 등을 비롯한 북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이상 낮았고, 특히 오대호 북부 지역과 캐나다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기도 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등에서는 추위로 인한 동해 피해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다. 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았고, 면화와 땅콩 등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 세계 기후 현황(11/05~11/11)

■ 유럽: 중부와 북부 유럽에서는 비가 내렸고,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지중해 중부 일대 해안지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북부 유럽 일대에서는 10~80mm 내외의 비가 한두 차례 내렸다. 세르비아 북부와 헝가리 중부 일대에서는 1~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지난주에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다시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 최근 파종을 마친 지역에서는 비가 더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북부 지역에서는 지난 90일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25~5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을 가뭄이 발생해서 수확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구소련(서부): 겨울밀 재배지 전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기온은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다. 하지만,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남부와 북동부,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밀의 휴면이 시작되었고, 휴면이 시작된 지역의 면적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고, 기온은 평년보다 1~3°C 정도 높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6°C 이상 높은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 남동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회복했고, 한반도 일대에서도 벼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주 초반에 10~2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수확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최근 파종을 마친 면화 등에는 충분한 양의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주 후반에 비가 그치면서 수확작업과 여름작물 파종작업은 재개되었다. 호주 남부와 빅토리아주 북부 등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밀과 보리의 수확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기온은 호주 서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2~4°C 정도 높았고, 그 밖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 아르헨티나: 중부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La Pampa, Cordoba 남부, Buenos Aires 서부와 남부 등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Buenos Aires 북부



및 Santa Fe, Entre Rio 등에서는 1~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였고, 낮 최고기온은 Buenos Aires 남동부에서는 20°C 초반, Santa Fe, Cordoba 등에서는 30°C 초반까지 올랐다. 보다 북부 지역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기온은 낮 동안 30°C 초반까지 올랐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9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75%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옥수수의 파종률은 45%를 기록했다.

■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의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Mato Grosso do Sul, Maranhao, Piaui, Bahia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주정부에 따르면 11월 10일 기준 대두의 파종률은 80%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p 정도 낮은 수치이다. Minas Gerais 서부에서 Rio Grande do Sul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비가 내렸고, Minas Gerais 남동부와 Rio Grande do Sul 남부에서는 25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6일 기준 대두와 옥수수의 파종률은 각각 80%, 99%를 기록했고, 밀의 수확률은 90%였다. Rio Grande do Sul에서는 11월 9일 기준 밀의 수확률이 78%를 기록했다.